

지역 소식통

수소전기 승용차 50대 보급 구입자에게 3,450만원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차량 구입자에게 3,4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3일 올해 수소전기 승용차 50대를 보급하고 1대당 3,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일까지 김제시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단체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배정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명의 독지가 이웃사랑 실천 상품에 성금 200만원 기탁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생계비를 모아 실천한 이웃사랑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제시 신풍동(동장 국형호)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헌박년이 내린 이날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떡 등 생필품이 배달됐다. 봉투 안에는 성금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동 관계자는 기부한 분의 좋은 뜻을 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선행자는 한 사코 거부하며 겨우 이름만 말하고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 나갔다. 확인결과 독지기는 신풍동에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70대의 어르신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생계비를 모아 기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형호 신풍동장은 "추운 겨울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익명으로 선행을 실천한 독지기의 기부는 지역 사회에 충분한 울림을 주고 있다"며 "전달할 소중한 성금은 신풍동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13개 읍면 연초 방문을 시작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나서고 있다.

“삼례 · 이서, 관광 · 문화 산업 육성”

유희태 완주군수, 연초 방문 시작... 지역별 특화 전략 밝혀

유희태 완주군수가 13개 읍면 연초 방문을 시작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정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격언을 항상 강조하는 유 군수는 연초 방문을 통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연초 방문 첫날인 23일 삼례읍과 이서면을 찾은 유 군수는 지역별 특화 전략으로 관광, 문화 산업 육성을 계획할 밝혀 큰 관심을 받았다.

우선 삼례읍은 지난해 말 준공한 완주문화역사전망대를 완주군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고, 삼례문화예술촌 내외부의 야간 경관을 개선해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한다. 삼례 삼색마을 예술인마을(아트체움

관, 아트공방 등), 삼례풍경길(자전거 투어길, 경관개선 등)을 연내 준공하고, 삼색정원과 전통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삼례테마공원을 착공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삼봉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삼봉지구 도서관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공모에도 도전해 삼례읍의 한별고, 하이테크고의 고등교육을 강화한다.

이서면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법 4대 지구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포

함돼 있는데 이서면은 문화상품의 기획, 제작, 유통 관련 대학과 연구시설이 집적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K 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문분야를 기반한 원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6홀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한 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향후 이 체육공원을 파크골프 스포츠마케팅 거점으로 역점 육성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읍은 완주관광의 허브로, 이서면은 신인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며 “읍면 특화 발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치유 · 체험 농업 올해도 이어간다

농촌 체험 서비스 · 전문가 양성 등 2월 2일까지 사업 접수

완주군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으며 추진된 치유·체험 농업 관련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3일 완주군은 치유·체험 농업 관련 사업 지원 접수를 오는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에서 받는다

치유농업은 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혁신적인 농업이다.

대상 사업은 △농촌 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치유농업 품질향상 전문가 양성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

텐츠 개발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등 총 5개다.

농촌 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은 치유 환경조성 및 전문가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을, 치유농업 품질향상 전문가는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한다.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은 농촌 치유 컨설팅 및 콘텐츠 개발을,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은 맞춤형 치유농장 콘텐츠와 유니버설형 재배 공간 등의 조성 지원이다.

사업대상자는 치유·체험 관련 사업

자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사업 지원과 별도로 군은 농촌 치유 활성화와 위한 맞춤형 기초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접수는 2월 23일까지로 관련 사업·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를 갖춰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지원팀(063-290-3263)에 신청하면 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농업인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치유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치유농업 선도 지역으로서 농가들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지난 22일부터 접수 시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소상공인의 이차 보전을 통해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난 22일부터 접수 받고 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6억원(2024년 5억원+이월액 1억원)의 10배에 해당하는 60억원의 보증한도 대출 이차지원이다.

이 사업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 이내에서 5년간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자격은 김제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신용평점 58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절차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김제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제출서류를 갖춰 시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시대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차부담을 줄이고, 금융비용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대출한도 3,000에서 5,000만원, 신용등급 4~7등급에서 1~7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상반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김제시, 다음달 7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귀농·귀촌 분야 2024년 상반기 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받는 사업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에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신축, 증·개축)자금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며 지원조건은 금액 용자(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전에 농업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개인별 적정 대

출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한 지 5년 이내이거나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만 신청가능하다.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농기계의 50%를 보조하며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농기계로 한해서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등 영농시설은 1,000만원 한도 내에 1층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타지역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신청 당시 김제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농가주택수리비는 세대 당 최대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540-45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